계란말이

- 프로덕션 팔로우 -

정영인 (주인공, 여, 24세 -> 29세) / 김현진 (영인의 어린 친구, 여, 11세 -> 16세) 김혁권 (현진의 아빠, 남, 39세) / 사장님 (반찬 가게 사장, 여, 45세)

S#1 반찬 가게 안 (오후) -현재

가게 입구 주변에서 서 있는 성인 여성 한 명. 스물 아홉 살의 영인이다.

CUT TO:

문을 열고 들어와 가게 안의 반찬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영인. 이내 한 곳에 멈처선 뒤, 천천히 앞에 있는 계란말이 팩을 집어든다.

S#2 반찬 가게 안 (오전)

계란말이 팩을 집어 드는 영인. 곧 팩을 들고 카운터로 걸어간다. 배달 가방에 계란말이 팩을 포함한 반찬 팩 여러 개를 담기 시작한다.

곧 영인에게 사장이 다가오며,

사장 사거리 김 씨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극성맞은 손님들 많다더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갖다 음식이 상했네, 성의가 없네...

영인 그래요?

사장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문 앞에 두라고 해도, 웬만하면 면대면으로 만나서 주고 와. 우리는 괜히 큰 일 만들지 말자.

사장의 말이 그리 와 닿지 않는 듯, 대충 고개를 끄덕이는 영인.

CUT TO:

배달 가방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는 영인. 곧 사장이 따라 나와 영인의 뒤에 대고 끈질기게 잔소리를 퍼붓는다.

> 사장 (가까이 붙으며) 107동 거기는 초등학생 부모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니까, 주기 전에 한 번 꺼내서 아무런 이상 없는 거 눈 앞에서 확인 시켜줘. 꼭. (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정영인, 듣고 있니? 너 학부모들이 제 새끼한테 얼마나 유난 떠는지 몰라?

영인 (건성으로) 네. 알겠어요.

영인은 사장의 말에 대충 대답한 후 발걸음을 재촉한다.

S#3 현진의 집 문 앞 (오후)

지친 기색으로 벨을 누르는 영인. 문 너머로 아무런 인기척이 들려오지 않자, 다시 한 번 벨을 누른다. 영인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집 문이 열리자, 영인의 시선이 옮겨진다.

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영인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조그만 소녀, 열 한 살의 현진이다.

> 현진 누구세요? 영인 아, 배달......

찰랑거리는 긴 머리와 예쁜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한 행색을 한 현진. 영인은 그런 현진을 보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다시 말을 이어간다.

> 영인반찬 배달 왔는데. 부모님 계셔? 현진 아빠 늦게 와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영인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현진. 영인은 난감한 듯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곧 배달 가방에서 반찬통이 든 봉투 하나를 꺼내든다.

> 영인 이게 라벨 색깔마다 보관 방법이 다 다르거든? (라벨을 하나씩 가리키며) 빨간색은 냉장실, 파란색은 냉동실. 아, 그 전에 일단 아이스팩은......

그때 영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리고,

영인 잠깐만.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주인(E) 909호 정영인 씨죠? 집주인인데요. 지금 빌라 전체에 누수가 나서요. 909호에도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영인 누수요?! (한숨 쉬고) 지금 갈게요. 네.

전화를 끊고 다시 한 번 현진을 보더니, 안 되겠다는 듯 가방에서 종이봉투 두어 개를 꺼내 현진에게 안겨주는 영인.

> 영인 자, 받아. 현진

무거운지 잠시 주춤하더니, 바로 잘 받아드는 현진.

영인 들어가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 꼭! 전부 다!

뒷걸음질 치며 현진에게 당부하는 영인. 현진은 그런 영인의 뒷모습을 멀뚱히 서서 바라본다.

S#4 반찬 가게 안 (오전)

두 손으로 공손히 수화기를 쥔 채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 사장.

사장 예. 예. 아유, 그렇죠. 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끄덕거리며) 예. 그래야죠.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상대가 바로 앞에 있는 것 마냥 재차 고개를 숙이며 통화하는 사장. 곧 통화를 끝낸 후 수화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더니, 영인의 앞에 배달 가방을 던지듯 둔다.

> 사장 (한숨 쉬며) 어휴... 너 도대체 배달을 어떻게 한 거야? 107동에서 반찬 다 상했다고 난리나서 전화왔어.

영인 ...죄송해요.

사장 그래도 이쯤에서 끝난 게 다행이지. 요즘 부모들이 좀 극성이니? (배달 가방을 툭 치며) 아무튼, 자. 이거 오늘 몫.

영인 ...네.

사장 하필 또 그 집이니. 이번에는 잘 해. 들린 김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도 드리고.

S#5 현진의 집 밖 (오전)

혹시라도 욕을 먹을까 싶어 살짝 긴장한 영인, 곧 벨을 누르고 기다린다. 조금 지나고 문이 열리자, 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다.

영인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

인사 하던 중 이질감을 느낀 영인.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현진이 멀뚱히 서서 영인을 바라보고 있다. 순간 머쓱해진 영인은 다시 자세를 고쳐 잡은 뒤 목을 가다듬으며,

영인 음... 흠. 어른들 계시니? 잠깐 불러줄래?

현진 저 혼자예요.

영인 그래? 오늘도? (가방을 들어보이며) 배달 온 건데...

현진 (영인과 반찬통을 번갈아 보며)

S#6 현진의 집 안-부엌 (오전)

부엌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하는 영인.

영인 저번에는 그렇게 가서 미안했어.

현진의 맞은편에 앉아 요구르트를 먹으며 고개를 가로젓는 현진. 집에는 반찬을 정리하는 소리와 요구르트를 쪽쪽 먹는 소리만 들려온다. 곧 정리를 마치고 현진에게 메모를 건네주며,

영인 자. 다른 건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이건 어른들 오셨을 때 보여드리면 돼.

현진에게 메모를 내미는 영인. 현진이 메모를 받지 않자, 받으라는 듯 모션을 취한다. 이내 메모를 받아 두 손으로 꼬옥 쥐는 현진.

영인 잊지 말고 보여드려. 꼭.

영인의 말에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는 현진.

S#7 현진의 집 안-현관 (오전)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려는 영인. 그때, 무언가를 느끼고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니, 영인의 옷자락 끝을 잡고 있는 현진이 보인다.

영인 (당황하며) 왜?

혀진

영인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현진 (손가락을 꼬물거리며)

답답하다는 듯 현진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영인.

이내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옷자락을 잡고 있는 현진의 손을 살짝 놓으며,

영인 미안한데, 언니 지금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해.

현진 (조용히) ...계란말이.

영인 응? 뭐라고?

현진 (전보다는 조금 큰 목소리로) ...반찬가게에서 일하면요. 요리도 잘해요?

엉뚱한 질문에 당황한 영인. 잠시 머뭇거리고,

영인 못하지는 않...을걸?

현진 (고개를 들고 밝은 목소리로) 진짜요?! 그럼 계란말이는요?

영인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간단히 만들지.

소극적이던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현진. 영인은 현진이 왜 그러는지 대충 알겠다는 듯,

영인 왜? 다음에 계란말이 갖다 줘?

현진 아뇨! 저......

영인 응?

다시 영인의 옷자락을 잡고 영인의 발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현진. 영인은 현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듯 재차 손목시계로 시간을 본다.

영인 계란말이 먹고 싶은 거면 다음에 언니가......

현진 (말을 끊으며) 저... 계란말이 만드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영인 ...계란말이?

현진 (끄덕거리며) 네.

뜬금없는 현진의 말에 당황한 영인. 옷자락을 잡고 있는 현진의 손을 살짝 풀고,

영인 미안한데, 나는 배달하는 사람이지, 음식은 안 만들어.

대신 다음에 배달 올 때 계란말이 가져다줄게.

현진 (서운한 듯)

대답하지 않는 현진을 잠깐 바라보곤, 뒤를 돌아 나가는 영인.

S#8 반찬 가게 안 (오전)

쌓인 반찬 도시락 통들을 정리하는 영인. 곧 영인의 옆으로 사장이 다가와 배달 가방을 건네준다.

영인 (의아한 듯) 이게 뭐예요?

사장 (배달가방을 내려놓으며) 107동 배달할 거.

영인 (도시락 통을 마저 정리하며) 오늘 그쪽 아니지 않아요?

사장 왜, 네가 실수한 집 있잖아. 그때 집에 애밖에 없어서 사과 못했다며.

오늘은 토요일이라 아마 집에 가족들 다 같이 있을 거야.

(가방을 툭 치며)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오늘은 제대로 사과드리고 와.

가방을 건네고 무심하게 돌아서는 사장.

곧 영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챙겨든다.

S#9 현진의 집 문 앞 (오전)

배달 가방을 고쳐 메는 영인.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집 안에서 혁권이 급하게 나온다. 영인은 혁권과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네고.

영인 안녕하세요.

혁권 (아래 위로 훑으며) ...누구?

영인 알바생이요! (반찬 가방을 보여주며) 반찬...

혁권 아... (시계를 보며) 제가 지금 바빠서요. 딸한테 주세요.

영인 어... 아직 어린 애 같은데 괜찮을까요?

혁권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하며) 어리긴... 받기만 하는 건데 뭘요. (전화를 걸며) 어, 박과장. 지금 내려가. 어.

급한 걸음으로 자리를 뜨는 혁권.

영인은 혁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시선 끝에는 현관 너머에 가만히 서서 영인을 바라보는 현진이 있다.

영인 (머쓱한 듯) ...들어가도 될까?

영인의 말에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는 현진.

CUT TO:

영인이 발에 신발이 채여 밑을 바라보니, 정돈되지 않아 엉망인 현관 신발장이 보인다. 사이즈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남자의 구두와 어린이의 신발이 뒤엉켜 있다. 괜히 한 번 뒤를 돌아보더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영인.

S#10 현진의 집 안-부엌 냉장고 주변 (오전)

영인이 부엌에 들어서자 현관과 마찬가지로 정돈되어 있지 않는 싱크대와, 식탁 위에 한 개 뿐인 식기들이 보인다. 곧 시선을 거두고 배달가방에서 반찬을 꺼내며 무심한 척,

영인 ...주말인데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보네?

봉지 안의 반찬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두며 별 생각 없이 묻는 영인. 현진은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현진 ...네.

고개를 들어 현진을 가만히 바라보는 영인. 그때, 현진의 뒤에 있는 가족사진이 영인의 눈에 들어온다.

- 양복을 입은 혁권과 체육복을 입은 현진이 단 둘이 찍은 사진 곧 영인은 가족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조심스럽게,

> 영인 (방금 전과 다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래? 현진 (영인을 빤히 쳐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화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찾아온다. 영인은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 정리를 시작하고, 현진은 제 손가락을 엇갈리며 영인의 모습을 바라본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는 현진.

CUT TO:

영인이 정리를 끝내고 냉장고 문을 닫자, 현진은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영인에게 다가간다. 제 앞으로 다가온 현진을 보며 무슨 일이냐는 듯 궁금한 표정을 짓는 영인.

영인?

현진 (머뭇거리며) 저... 언니.

영인 응?

현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영인의 얼굴이 처음보다는 한결 다정스러워 보인다.

현진 (소심하게 속삭이듯) 계란말이......

현진의 작은 목소리에 눈을 가늘게 뜨는 영인. 현진이 말하는 발음을 살며시 따라하며,

영인 혹시 또 계란말이 말하려는 거야?

현진 (깜짝 놀라며)

영인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계란말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현진 (머뭇거리며) 그게...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진. 영인은 그런 현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으며,

영인 말해 봐. 괜찮아.

시선이 가까워진 영인을 조용히 바라보는 현진.

S#11 현진의 집-부엌 식탁 (낮)

서로 마주보며 식탁에 앉은 영인과 현진. 두 사람의 앞에 빨대가 꽂힌 요구르트가 각각 놓여 있고, 현진의 옆에는 다 마신 요구르트 두 개가 더 놓여있다.

현진이 마시던 요구르트가 바닥을 보이자, 빈 공간이 내는 빨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인은 요구르트를 잘 마시는 현진이 새삼 귀엽게 느껴져 살며시 웃는다. 영인은 자신의 앞에 놓인 요구르트를 현진에게 내밀며,

> 영인 이러다 날 새겠다. 언제 얘기해 줄 거야? 현진 (빨대에서 입을 떼며)

영인은 현진이 자신을 마주보자 편하게 얘기하라는 듯 조용히 고갯짓을 한다.

S#12 현진의 집-부엌 식탁 (오후) (Flash Back)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현진, 혁권, 현진母. 현진母는 앞접시에 계란말이를 너댓 개 담은 뒤, 케첩을 뿌려준다. 곧 현진母가 앞접시를 현진의 앞에 두자, 현진은 아주 맛있게 먹는다.

현진(N) 엄마랑 아빠가 원래 저 케첩 먹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밥 먹은 날에는 계란말이에 케첩을 뿌려주셨어요.
그때 우리 계란말이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빠가 제가 만든 계란말이 먹고 그때처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S#13 현진의 집-부엌 식탁 (낮)

영인 (조심스럽게) ...그래서 직접 계란말이를 만들겠다는 거야?

현진 (뜸을 들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네.

영인 (황당한 얼굴로 현진을 보며)

현진 (눈을 크게 뜬 채 영인을 보며) ...도와주면 안 돼요?

현진의 부탁에 잠시 고민에 빠진 영인. 이내 냉장고 옆에 붙여진 혁권과 현진의 사진을 본 뒤, 다시 한 번 현진이를 바라본다.

영인 (한숨 쉬며) 그래. 도와줄게.

현진 (깜짝 놀라며) 진짜요?

영인이 수락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듯 해맑게 웃는 현진.

영인 (체념하듯 미소지으며) 그래, 진짜로.

현진 (신난 듯) 우와!!!

기분 좋게 웃어 보이는 현진을 보며 그냥 웃어버리는 영인.

S#14 -1 [몽타주] 현진의 집 부엌 / (오후)

(현진의 집 부엌-1)

큰 투명 볼과 계란이 놓여 있는 식탁.

영인은 계란하나를 집어 들고 투명 볼에 깨트린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현진.

영인 (계란을 현진에게 주며) 자, 이렇게 해봐.

현진은 계란을 조심스럽게 잡아 투명 볼에 힘껏 깨트린다.

껍질이 다 들어간 것을 본 영인은 황급히 볼에 껍질을 빼내며 한숨을 쉰다.

현진은 머쓱한 듯 영인의 눈치를 본다.

S#14 -2 [몽타주] 현진의 집 거실 / (오후)

(현진의 집 거실쯤-1)

식탁 위를 정리하고, 나가려는 영인.

그 주변을 서성이다, 등 뒤로 숨겨 놓은 인형을 쭈뼛거리며 내미는 현진.

당황하다, 인형(1)을 받아드는 영인. 인형(2)에는 [Thanks]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S#14 -3 [몽타주] 현진의 집 현관 / (오후)

(현진의 현관문 앞-1)

현진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 현진이 보인다.

배달이 아닌 다른 일로 현진의 집에 오는 것이 처음인 영인 또한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온다.

현진 안녕하세요..

영인 실례하겠습니다..

S#14 -4 [몽타주] 반찬가게 / (오후)

(반찬가게-1)

영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자 피곤한 듯 어깨를 주물거리는 영인.

곧 사장이 지나가며 말한다.

사장 요즘 영인이 너 왜이리 상태가 안 좋아? 오늘은 유독 피곤해 보이네.

영인 (가볍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S#14 -5 [몽타주] 현진의 집 부엌 / (오후)

(현진의 집 부엌-2)

큰 투명 볼과 계란이 놓여 있는 식탁.

영인은 계란하나를 집어 들고 현진에게 건넨다.

영인 (계란을 현진에게 주며) 자, 다시 해봐.

현진은 계란을 조심스럽게 잡아 투명 볼에 깨트린다.

껍질이 조금 들어갔지만 전보다 나아진 실력에 현진과 영인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S#14 -6 [몽타주] 현진의 집 거실 / (오후)

(현진의 집 거실쯤-2)

식탁 위를 정리하고, 나가려는 영인.

웃으며 인형(2)를 건네는 현진. 미소를 지으며 인형(2)를 받아드는 영인.

S#14 -7 [몽타주] 영인의 집 / (오후_밤)

(영인의 집-1)

자격증 책에 볼펜으로 체크하던 중 옆에 놓인 책자를 뒤지는 영인.

그러다 책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를 발견하고,

천천히 책에 쓰여진 내용을 훑기 시작한다.

S#14 -8 [몽타주] 공원 / (오후)

(공원-1/오후)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내용물이 가득 담긴 봉투를 옆에 내려놓은 채, 즐거운 얼굴로 쮸쮸바를 먹고 있는 영인과 현진.

S#14 -9 [몽타주] 현진의 집 현관 / (오후)

(현진의 현관문 앞-2)

문을 활짝 열고, 바로 뒤돌아서 들어가는 현진.

현진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영인 (신발을 벗으며) 응. 눈이 빨리 떠져서~

익숙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영인.

S#14 -10 [몽타주] 현진의 집 부엌 / (오후)

(현진의 집 부엌-3)

식탁위에 계란과 여러 야채들이 놓여있다.

영인 (계란을 현진에게 주며) 자!

현진 (계란을 능숙하게 깨고, 섞는다.) ...

계란을 능숙하게 깨고 섞는 현진을 보며 영인은 눈썹을 올리며 으쓱해한다.

S#14 -11 [몽타주] 현진의 집 거실 / (오후)

(현진의 집 거실쯤-3)

현진의 앞으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영인.

당황한 현진. 이내 밝게 웃으며 영인의 손에 인형(3)를 올려놓는다.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둘.

S#14 -12 [몽타주] 현진의 집 부엌 / (오후)

(음식장면)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 / 당근을 써는 모습 / 쪽파를 써는 모습 여러 그릇에 다양한 계란말이가 보인다.

S#15 현진의 집-부엌 (오후)

계란물에 이것저것 넣을 야채를 다지고 있는 영인. 한편 현진은 영인의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리저리 바라본다.

현진 언니, 나는 뭐 하면 돼?

영인 (야채에 시선을 고정하며) 이따. 잠깐 기다리고 있어.

현진 치.....

영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뾰루퉁한 얼굴로 뒤를 도는 현진. 이내 테이블 위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후라이팬을 바라본다. 한편, 야채를 썰다 손등을 베인 영인.

영인 아!!

영인이 손가락을 부여잡으며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현진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란 영인이 서둘러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향한다.

현진 (상처를 부여잡고) 으아앙!

영인 (현진의 팔을 잡아 빼며) 봐봐, 다쳤어?

현진 으앙!

현진의 옆에 떨어진 후라이팬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한 영인. 착잡한 듯 머리를 쓸어 넘긴다. 안 되겠다는 듯 서랍을 뒤지며 구급약 상자부터 찾는 영인. 한편, 동시에 현관에서 삑삑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온다. 영인은 듣지 못한 채, 계속 서랍을 뒤지고 있고, 현진은 상처가 아픈지 울고 있다.

그때, 서랍을 뒤지고 있던 영인의 뒤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온다.

혁권 ...뭡니까?!

영인이 깜짝 놀라며 뒤를 바라보자, 성난 얼굴의 혁권이 서있다. 혁권은 영인과 집 주변을 잠시 번갈아 보다, 영인을 밀치고 현진에게 재빨리 다가간다. 이내 현진의 상처를 잠시 살핀 후, 몸을 일으킨 뒤 현진에게 소리치는 혁권.

혁권 당신 뭐냐고!!

영인 (당황한 듯)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때 그 배달 알바생이에요. 제가 현진이 도와주려고 잠깐 집에 온 건데...

혁권 (말을 끊으며) 지금 애 팔이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영인 (머뭇거리며) 아니...

혁권 당신 짓이냐고 묻잖아!!!!

혁권이 소리를 높이자, 현진이 갑작스레 다가와 아빠의 손을 잡는다.

현진 (울먹이며) 아빠... 그만해...(그러지마)

혁권 저런 상식도 없는 인간 감싸주지 마. 어린애만 있는 집에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는...

영인 (혁권의 말을 끊으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저 현진이 도와주러 온 거라고.

혁권 도대체 뭘 도와? 그리고 당신이 현진이를 도와주러 온 건지, 도둑질을 하러 온 건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할 말을 잃은 듯 머리에 손을 짚고 감정을 삭이는 영인.

혁권 그 나이 먹도록 배달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지...

영인이 짚고 있던 손을 내리자, 피가 고여 있는 상처가 보인다. 영인은 입술을 깨문 채 상처를 가만히 내려다본 뒤 집 밖으로 나간다.

한편, 혁권은 영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닫힌 문 쪽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다시 현진에게로 옮긴다.

S#16 골목길 (오후)

영인은 눈물이 고인 채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빠르게 걸어간다. 영인의 손에는 피와 계란 껍질, 채소 쪼가리 얼룩져 붙어 있다.

S#17 현진의 집-거실 (밤)

현진을 의자에 앉혀둔 채, 꼿꼿이 선 자세로 팔에 붕대를 감아주는 혁권. 한편, 현진은 진정이 되었는지 울음이 멎은 상태다.

> 혁권 (짐짓 엄한 목소리로) 왜 이상한 사람을 집에 들였어. 너 이렇게 아빠 걱정할 일 만들래?

혁권의 말에 자신의 발 끝만 내려다 보는 현진. 현진은 머뭇거리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 현진 ...친구예요. 혁권 (잘못들었다는 듯) 뭐?

무슨 말이냐는 듯 묻는 혁권. 곧 현진은 혁권과 시선을 맞춘 채 조금 커진 목소리로,

> 현진 영인 언니... 내 친구예요. 이상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진의 단호한 말투에 조금 놀란 듯한 혁권. 이내 무심한 척 붕대를 마저 감는다.

S#18 -1 [몽타주] 화상사건 이후 영인의 일상 / 영인의 집 (대낮) (영인의 집-대낮)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꼼짝도 않고 있는 영인. 피딱지가 굳어 아직 아물지 않은 손등의 상처가 보인다. 한편, 사장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 오자, 영인은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S#18 -2 [몽타주] 화상사건 이후 영인의 일상 / 영인의 집 (새벽) (영인의 집-새벽)

부시시한 모습으로 힘 없이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영인. 냉장고 안에 물을 넣다가 손등의 상처가 옅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내 무거운 숨을 내뱉는다.

S#18 -3 [몽타주] 화상사건 이후 영인의 일상 / 공원 (새벽)

(공원-새벽)

이른 아침, 땀을 잔뜩 흘리며 조깅을 하는 영인. 주먹을 쥐고 뛰어가는 영인의 손등에는 상처가 많이 옅어져 있다.

S#19 영인의 집 안 (아침) -1~2주 뒤

분주해 보이는 영인.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청소를 하고 있다. 벨소리가 울려도 무시한 채 청소에만 몰두하고 싶다는 듯 계속해서 청소를 하는 영인. 벨이 끊긴 후 곧 문자가 오자,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확인한다.

> 사장(E) 전화는 왜 안 받아? 가게에 네 짐 그대로 있어. 오늘 내로 안 찾아가면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사장에게서 온 문자를 보며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영인.

S#20 반찬 가게 안 (오전)

- 티셔츠, 충전기, 에코백 등...

가방 안에 짐들을 넣는 영인. 사장은 영인의 옆을 서성이며,

사장 연락도 없더니 물건 버린다는 말에는 오네? 너 그렇게 관두고 내가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

영인 (난처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다른 알바생은 구하셨어요?

사장 구하긴 뭘 구해. 요즘 날씨 때문인지 주문도 줄었고... 이제 날 풀릴 때까지 배달은 안 할 거야.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배달 자주 시키던 1단지 부녀도 이사 갔고, 요 앞집 신혼부부도 조만간 이사 간다 그러고.

영인 ...1단지 부녀면 그 107동이요?

사장 그래, 거기.

사장의 대답에 벙찐 표정을 짓는 영인.

S#21 현진의 집 단지 (오전)

사장(N) 지방 발령인지 뭔지... 그거 때문에 내려간다더라고. 그래도 거기 꽤 단골이었는데...

착잡한 표정으로 현진의 집 창문 쪽을 바라보는 영인. 조용히 바라보다 이내 발걸음을 돌린다.

S#22 영인의 집 안 (오전) -현재

알람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자, 영인이 이불 속에서 꼬물거리며 알람을 끈다.

조용히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영인이 깜짝 놀라 일어난다.

CUT TO:

분주하게 화장대와 서랍을 뒤적거리는 영인.

영인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꼭 필요할 때 없다니까. (USB를 잡으며) 아, 찾았다!

그때, 쌓아져있는 상자가 쏟아지고, 과거에 현진이 준 인형들이 보인다. 떨어진 인형을 집어 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긴 영인. 이내 인형을 화장대 위에 나란히 올려두고 집을 나선다.

S#23 회사 밀집 지역 (오후) -현재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어깨에 핸드폰을 아슬하게 걸친 채로 통화 중인 영인.

> 영인 대리님. 지금 A업체 미팅 끝났구요, 지금 자료 들고 들어가려고요. 대리(E) 그래? 그럼 시간 애매하니까 정주임은 그냥 바로 퇴근해. 자료는 내일 아침에 과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만 해두고. 영인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영인. 이내 자료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S#24 반찬 가게 안 (오전) -현재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문득 아침에 보았던 장난감을 떠올린 영인. 더불어 계란말이가 생각나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CUT TO:

반찬 여러 개를 둘러보다, 계란말이가 즐비한 곳 앞에 멈춰선 영인. 계란말이를 조용히 바라본다.

> 현진(N) 그때 우리 계란말이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빠가 제가 만든 계란말이 먹고 그때처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5년 전 현진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영인. 영인이 계란말이 팩을 집어드려 손을 뻗자, 한 소녀의 손과 부딪힌다. 사과를 하려고 고개를 들자, 소녀의 가방에 달려 있는 인형이 시선 끝에 걸린다.

어딘가 투박하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때가 타있는 인형. 영인은 가만히 인형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 FIN -